

# 너무 무덤덤한 우리의 창작동화

## 창작동화 '전멸' 위기... 독자 빨아들이는 개성 있어야

조대현  
아동문학가

신문학 80년사상 동화작가가 작품집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산 시대는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우리 창작동화의 시장은 좁고 독자층도 얇다. 그렇다면 작금년의 상황처럼 불황인 때도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전멸'이라고 하면 옳은 표현일까? 2년 가까이 국내 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동화집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어쩌다가 대형 출판사가 오래 전에 기획한 시리즈물을 몇 권 선보였을 뿐, 그밖의 중소 출판사에서는 아예 창작동화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을 써도 책을 낼 수가 없으니까 작가들의 창작 의욕마저 위축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이즈음 아동문학동네 사람들의 사정이다.

### 소설책 위주의 출판·구매 행위

창작동화가 팔리지 않는 이유는 외적·내적 양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외적인 이유로서는 작금년의 출판 불황을 들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출판 전 분야가 타격을 입다 보니 아동도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아동도서가 지니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구매심리에는 어딘가 잘못된 데가 있다.

어른은 못 읽어도 자녀들에게만은 읽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풍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 어른이 먼저 문화적 향수(享受)를 누리고 난 뒤에야 겨우 어린이 문화에 눈을

### 출판 불황 속에 창작동화는

'전멸' 위기를 겪고 있다.

어린이 독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외적인 원인 외에도 시대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우리 작가들의 현실대응력 부족도

'창작동화 위기'를 부채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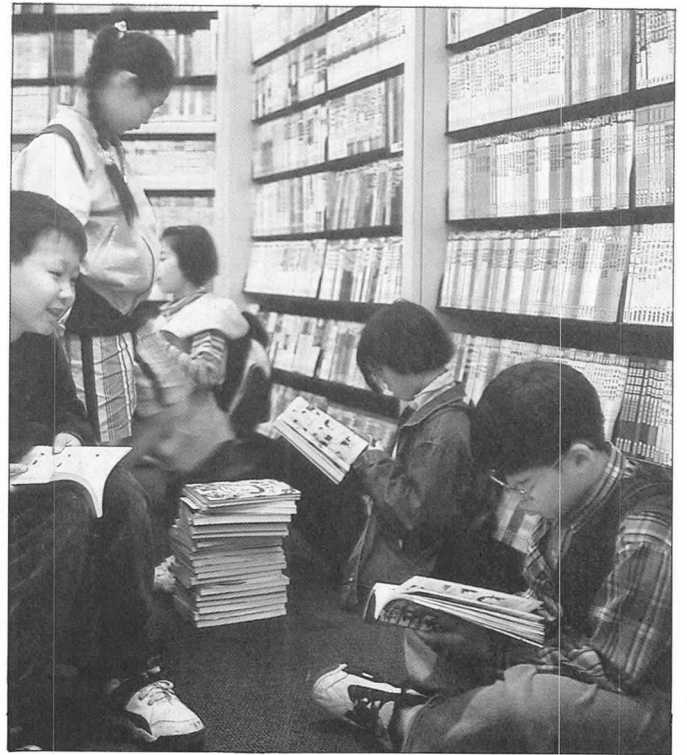
풍요로운 환상과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당기는 개성적인 주인공상 등

즐거리와 기법에 변신이 요구된다.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의식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소설책이 어느 정도 팔려야 동화집에도 손을 대는 출판·구매의 관행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두번째로 '어린이 독서'에 대한 최근의 잘못된 인식도 창작동화의 출판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책을 읽는다면 으레 학습자료집을 열람하는 것쯤으로 왜곡 이해하는 경향이 굳어가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실제 독자인 어린이보다 배후 조종자인 학부모 쪽이 더 심해서, 동화집이나 동시집은 사주지 않아도 자습서나 문제집 또는 컴퓨터 안내서같이 실제 학습에 응용되는 책은 아낌없이 사 준다. 입시위주와 무모한 경쟁 풍조가 가져온 폐해라 해야 할 것이다.



창작동화가 '전멸' 위기를 겪고 있다. 안팎의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신이 요구된다.

그런가 하면 요즘 어린이들의 빗나간 독서풍조도 창작동화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급속도로 보급된 비디오와 영상자료의 감각화 탓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의식은 지나치게 쾌락추구 성향으로 치닫기만 하고 있어 걱정이다.

책을 읽어도 성적 호기심이나 명랑 괴기 공포 잔혹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쏠리고, 독서 수단에 있어서도 인내를 요하는 활자 인쇄물보다 그저 눈으로 스쳐 지나가며 즐

기는 만화에만 눈을 밝힌다.

그렇다고 이를 바로잡아 독서의 균형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무한데다가, 출판계마저 오히려 어린이의 이런 쾌락추구 성향에 편승하려고 열을 올리는 추세이고 보니 창작동화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작가들의 현실대응력도 부족

이런 것이 외적 원인이라고 한다면 내적 원인은 시대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 1 나만이 아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3 비탈로의 동물농장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4 평화의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과학 동화]  
E. 산단게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7 천지창조 이야기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8 진주섬 이야기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운 옮김/3,000원
-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M. 라이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 11 말방울의 추억[과학 동화]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R.M. 론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4 뇌 속으로의 여행[과학 동화]  
F.B. 니카시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5 거리의 화가  
F.B. 니카시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6 가난뱅이 조니와 아르니까  
E. 라이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17 평화의 어린이들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18 아프리카 동화  
아자리안, 커닝햄 엮음/노재운 옮김/3,000원
- 19 두 임금님  
F.B. 니카시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 20 넓은 자동차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이훈희 지음/4,000원

- 22 사각형의 세계[수학 동화]  
F.B. 니카시오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3 흑인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 24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티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 25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M. 보띠리에리 지음/노재운 옮김/4,000원
- 26 우물 속의 보물  
L. 코몰리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27 환상의 나라에서  
E. 올리베로 지음/노재운 옮김/4,000원
- 28 자유를 사랑한 아기곰, 벨라[환경 동화]  
M. 스트리안네지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 “풍요 속에 빈곤”

## 아동문학상의 인플레 현상... 의례적 행사 지양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문학상은 20여종을 웃돈다. 아동문학의 양과 질을 놓고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주요 아동문학상은 아래 표를 참조)

가장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소천아동문학상은 1965년 강소천 선생의 타계 2주기를 맞아 김동리, 조지훈, 박목월 등이 운영위를 조직하고, 배영사의 주관으로 시작하였다. 1969년까지는 매년 수상자를 내다가 출판사의 사정으로 중단.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다가 1984년 11월 계몽사에서 인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장편동화 《팽이씨가 받은 유산》(중앙일보사)을 쓴 조장희(57)씨가 선정되었으며, 5월 17일 시상 예정이다.

〈따오기〉의 시인 한정동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유족들이 인세를 출연하여 시작한 한정동아동문학상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세종아동문학상이 언론사에서 주는 유일한 문학상인 탓에 외풍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이다.

작가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운영주체의 이름을 그대로 상의 명칭으로 전용한 경우는 대체로 역사가 짧고, 재력을 가진 어린이책 출판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해 동안 세종문학상의 실무를 맡았던 김병규씨는 상의 ‘인플레현상’을 아동문학상의 문제점으로 첫손에 꼽았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신인 등용문으로서의 문학상제도와 기성 작가에게 주는 문학상의 구분이

〈주요 아동문학상〉

상 이름	운영주체	신설연도
소천아동문학상	계몽사	1965
세종아동문학상	소년한국일보사	1968
한정동아동문학상	동상운영위원회	1969
이주홍아동문학상	동상운영위원회	1981
새벗문학상	월간새벗	1982
눈높이아동문학상	대교	1991
동쪽나라아동문학상	동쪽나라	1992

모호하다는 것을 들었다.

위낙 상이 많다 보니 일부에서는 상을 기피하는 풍조까지 나타난다. 반면 계몽, 대교, 새벗, 동쪽나라, 삼성문예상, MBC 창작동화상 등 예닐곱을 헤아리는 신인문학상은 역량 있는 작가의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문학상을 만든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입니다. 아동문학상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측의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문학계를 위해서 자진 폐지하고, 내실있는 상은 더 좋은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주체측의 의지가 긴요합니다.”

작품위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되 상금을 올리고, 마땅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자를 내지 않는 것도 의례적인 연례행사를 지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김병규씨는 강조했다.

—최성일 기자

못하는 우리 작가들의 현실 대응력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초고속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들은 기존의 질서와 문법에 안주하여, 쉽사리 자기 탈피의 변신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창작동화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상상력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동화의 속성이 현실을 초월한 환상(판타지)세계의 창조인데, 우리나라 동화에는 전통적으로 내용면에서나 기법면에서나 이 환상성의 창조가 빈약하다. 환상이 빈곤하다 보니 어린이가 책을 읽으면서 맘껏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 꿈의 유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영상매체 발달에 힘입어, 과거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체험한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운 환상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양자간의 괴리가 어린이로 하여금 창작동화에서 멀어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우리 동화 속의 이야기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기법이 무덤덤하다는 데도 한 원인이 있다. 우리 동화가 서점에서 낯잡자고 있는 동안에도 꾸준히 팔려나가 독자의 사랑을 받는 번역동화들과 비교해 보면, 저들의 이야기에는 각기 독특한 주제와 색다른 줄거리가 담겨 있으며, 무엇보다도 독자의 호기심을 사로잡는 개성적인 주인공상이 살아 있다. 그것이 한번 책을 펼쳐 들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못건디는 마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법 또한 개발해서, 처음부터 신기한 환상이나 이색적인 장면 속으로 끌고들어가 독자가 중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동화는 아직도 ‘옛날 옛적 어느 곳에’식의 정해진 틀 속에서 고식적인 손재주만 부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 어린이의 정체성 찾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 작가가 쓴 동화를 읽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판타지와 참신한 전달기법을 개발해내야 할 것이고, 출판인은 다른 어느 분야에 앞서 창작동화가 지닌 교육적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학부모는 자녀의 지적 능력과 더불어 정서적 도덕적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창작동화를 선별해 읽히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제 출판 자유화 물결을 타고 당장 내년부터 상업성 강한 외국의 아동도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차별 침투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 이런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진다.

우리 어린이에게 창작동화를 읽히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고, 좀더 자라 청소년이 된 뒤에도 꾸준히 양서를 찾아 읽는 안목과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당신은 일본 남자가 쓴  
밤상 위의 한일 전쟁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한국의  
한국인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현대판 만·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특특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별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 6,000원